

급식실 노동자 건강실태



이진우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급식실 노동자는 한정된 공간에서 운반, 세척, 조리, 배식, 후처리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작업환경과 업무 특성상 ▲미끄러운 급식실 바닥으로 인한 넘어짐 ▲작업 통로가 협소하여 생기는 부딪힘 ▲열원을 이용한 조리 작업 시 화상 위험 ▲식자재 운반·조리 등 무겁고 힘든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시간에 쫓기는 작업으로 생기는 직무스트레스 등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높으며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다.

2007년 광주의 한 조리실에서 이동하다 미끄러지며 후두부가 기둥에 부딪혀 사망한 사례가 있고, 2009년 대구에서는 식재료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하기도 했다. 2014년 서울에서는 애벌 세척용 뜨거운 물에 빠진 후 화상을 입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기도 하였고, 2021년에는 1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이 발생한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되었다.

학교 급식실에서 가장 빈번한 재해는 넘어짐, 화상, 근골격계질환 등이다. 2019년 기준으로 일반 노동자와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재해율을 단순 비교했을 때, 화상은 20.5배, 근골격계질환은 4.8배, 넘어짐은 4.0배 학교 급식실 노동자에게 더 발생했고, 전체 재해율도 2.7배나 높았다. 이렇게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높은 노동강도 때문이다. 2014년 ‘충북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정책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당시 충북 학교 급식실 노동자 1인당 급식 인원 112.4명을 기준으로 112.5~149.0명인 군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도가 6.1배, 149.1명 이상인 군에서 7.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계는 급식실 노동강도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충원을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청별로 편차(충남·세종 88명 수준)가 있지만, 대전교육청의 경우 일반 공공기관 급식실 노동자 1인당 급식 인원의 2.5배 달하는 134명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폐암까지 발생, 급식실 전면적 개선 절실

1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이 발생한 노동자가 2021년 산재를 인정받으면서 급식실의 공기질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이후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요구로 폐암 선별검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폐암 의심(4A 이상)’이 약 1% 정도 나타났다. 일반 인구와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높은 폐암 유병률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현재 학교 급식실 환기시스템은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상방형 후드 형태로 표준화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호흡기영역이 후드 안에 위치하면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 상승기류와 조리흠이 호흡기를 거치게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그 대안으로 측방형과 같은 슬롯 형태의 환기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환경개선에 반기를 들고 있다. 교육부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20년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폐암으로 급식실에서 노동자가 연이어 죽어 나가게 되어도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노릇이다. 노동부도 마찬가지다. 학교 급식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급식실 및 식당의 환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의 대부분 원인은 인력 부족 탓이다. 근골격계질환은 물론이고, 넘어짐 사고나 화상도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폐질환도 마찬가지다. 조리흠과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개인 단위 노출을 감소해야 하고, 노동강도를 낮춰야 질환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인력을 순환배치해 한 사람이 수행하는 조리 양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다. 조리흠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튀김, 볶음, 구이요리 횟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학교 급식실뿐 아니라, 일반기업 및 병원 식당, 일선의 식당(특히, 중식당)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까지의 노동환경을 살피고 또 개선해가야 할 때다. 🍷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의 대부분 원인은 인력 부족 탓이다. 인력을 순환배치하고 한 사람이 수행하는 조리 양을 감소시켜야 한다.

